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至是是是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352호【루계 제24400호】주체102(2013)년 12월 18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금 수 산 래 양 궁 전 을 찾 으 시 였 다



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을 맞이하였다.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군,항공 및 반항공군,로농적위군 씌여져있었다. 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12월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였다.

기남동지,최태복동지,박도춘동 이였다. 지,김영춘동지,양형섭동지,강석 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들어서시였다. 중앙위원회 일군들, 무력기관의 지 절절히 그리는 마음들이 끌없이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함께 참가하였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에 휩싸여있었다.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방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2돐 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시며 조선 드리였다.

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 위 대 한 김일성대 원 수 님 과 회의 상임위원회,조선민주주의인 시였다.

조선로동당 제 1 비서이시며 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력사적인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 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시며 조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참 가 자 들 과 함 께 위 대 한 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며 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김 일 성 대 원 수 님 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 다 바쳐오신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륙군,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동지,리영길동지,장정남동지,김 애국자의 가장 빛나는 고결한 한생 해군,항공 및 반항공군,로농적위 숨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였다.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위대한 는 당기와 공화국기,군기들이 세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설주동지와 수령님의 위업을 받들어 혁명의 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륙군,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 주동지, 김원홍동지를 비롯한 평양 의 강한 힘이시고 천만군민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동지밖에

휘성원들,성,중앙기판 일군들이 굽이쳐가고있는 주체의 최고성지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조선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계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 이 있을것이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는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울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량옆에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홀,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

>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 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 경 애 하 는 김정은 동 지 께 서 는 사, 제 자 답게 경 애 하 는 김정은 동지 싸워나갈 철석같은 맹세를 다짐하

>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이신 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절대불변 경 애 하 는 김정은 동지 께 서 의 신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 > 본사정치보도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2돐

혁 명 수도 중앙추모대 회 의 평양에서 행 정 경 하 卆 하 모 H 오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2년이 되였다.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어버이장군님을 언제나 우러르며 천만군민이 장군님과 함께 투쟁하 고 승리하여온 지난 2년간은 력사 의 12월에 다진 맹세를 안고 강성 번영의 밝은 앞날을 향해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발걸음은 한치의 드 팀도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확증한 나날이였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간직한 천만의 대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운명도 미래도 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태양조선,백두산대국의 일대 번영 기를 펼쳐왔다.

에서 엄숙히 거행되였다.

추모대회장인 평양체육판은 올려세우시고 우리 인민이 민족 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만대의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갈수

휘날리는

져있었다. 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위해 조국에 온 재일본조선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 추모대표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 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들과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 였다. 위대 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의 성산 백두산모형이 걸려있었다.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 를 드립니다》, 《위대한 령도자 맡 기 고 그 이 의 령 도 따 라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제 1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우리 당파 우리 인민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였다.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2돐 중앙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김일성민족의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지에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

병들. 평양시내 기판, 기업소, 공 추모대 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장,협동농장 일군들,혁명렬사유가 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당,무력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족들, 공로자들, 근로자들이 참가하 기관, 내각, 근로단체 일군들, 당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서거 2돐 추모행사에 참가하기 동포들, 연고자들, 반제민족민주전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 선 평양지부 대표가 여기에 참가하

추모대회에는 주조 여러 나라 외 추모대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판단 김기남동지가 중앙추모대회 개회를 성원들, 외국인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 추모대회가 17일 혁명의 수도 평양 《위대 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동지,리영길동지,장정남동지,황순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의 발걸음이 다그쳐진데 대하여 그 수령으로 높이 모시며 경애하는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희동지,김철만동지,김기남동지,최 사 수 하 자 !》 . 《 경 애 하 는 태복동지, 박도춘동지, 김영춘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강석주동 지, 오극렬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 동지, 김영일동지, 김평해동지, 곽범 추모대회에는 당, 무력, 정권기 기동지, 문경덕동지, 최부일동지, 김 있는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관,사회단체,성,중앙기관 일군 창섭동지,로두철동지,조연준동지,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공로있는 군 대와 사회의 일군들, 영웅들, 접견자 들,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다.

임고문.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김칠성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제1부위원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선언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예지 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혁명 여 민족번영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모시 자 !》, 《위대 한 령도자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추모 펼치시고 주체위업완성의 만년초 석을 쌓으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묵상하였다.

> 추모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 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추모사 주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혁명과

조선인민군을 대표하여 조선로 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동 지,과학자들을 대표하여 국가과학 원 원장 장철동지,로동계급을 대 표하여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오형진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상 위원장 현상주동지가 결의연설을 장군님의 혁명업적은 태양조선의 하였다.

연설자들은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영상이신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르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수령영생을 위한 충정의 대하가 도 백승의 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도히 굽이친 지난 2년간은 우리 군 대와 인민이 장군님과 혈연의 뉴대 를 더욱 억세게 이어온 나날이였다 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우리 임없이 창조해나갈 굳은 결의를 표 과 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 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시고 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총진군대 오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류례없이 엄혹한 시련이 겹쌓인 속에서도 천 만군민의 마음이 든든하고 대진군 안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들은 언급하였다.

념원을 구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쟁속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 리에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굳게 뭉 로 영생하신다》의 노래주악으로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정일애국 끝났다.

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켰다고 말하였다.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애국애민의 의지로 온몸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무적의 군력과 불패의 군민대단결을 마련하시여 우리 조 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 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만년재보로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 나가며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 설의 들끓는 전구마다에서 시대를 진감시키는 새 기적,새 기록을 끊

전체 참가자들은 어버이장군님의 품속에서 가장 존엄높고 보람찬 삶 을 누려온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 울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추모대회는 《장군님은 태양으

본사정치보도반

정 일 동 지 의 위 강성 없 번 영

조 선 로 동 당 무 위 원 회 중앙위원회 중 앙 추 모 대 회 에 서 치국 원 이 며 한 정 상 동 지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 원 장 인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하늘 같이 믿고 따르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너무도 뜻밖에 우리 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2돐이 되였 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해가 바뀔수록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우리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고 눈보라치는 12월에 다진 신념의 맹세는 백배천배로 굳세여지

고있습니다. 지난 2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버이장군님을 언제나 우러르며 장군님과 함께 투쟁하고 승리하여온 나날이였습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시고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신다 는 신념의 기둥이 있었기에 류례 없이 엄혹한 시련이 겹쌓인 속에 서도 우리의 마음은 든든하였고 전진의 발걸음은 한치의 드림도 선군조선의 백승의 력사는 영원하리 없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존함은 조국수호, 사회주의수호의 필승의 표 대가 되고 장군님의 태양상은 강성 의 대하가 도도히 굽이친 이 나날

는 힘의 원천이 되였으며 장군님의 마나 위대하신분을 령도자로 모셔 간平한 가르치심은 화를 복으로 전 왔는가를 더더욱 가슴뜨겁게 절감 환시키는 전략과 담력을 안겨주는 불 하였습니다.

패의 보검이 되였습니다. 그 어떤 천지풍파도 사상과 뜻, 정 과 의리로 맺어진 어버이장군님과 천 만군민의 혈연의 억센 뉴대를 끊을 수 없고 이 위대한 혼연일체가 있어 라는것이 우리모두가 심장깊이 새긴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온 나라에 수령영생을 위한 충정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번영할 래일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 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가 얼

김정일동지의 한생은 백두에서 뿌리내린 주체혁명의 혈통을 꿋꿋 이 이으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오신 걸출한 령도자 의 성스러운 한생이였으며 우리 민 족사와 세계정치사에 미증유의 대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령장의 한생 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용떨치게 되였습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김일성주의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 시대의 완성된 지도사상으로 빛 키우시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 내이시였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 행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온 사회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높이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건설하시고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세상에 둘도 없는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선군을 한평생의 드팀없는 혁명 는 인민군대를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여 민족 만대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년대와 년대들을 창조와 위훈으로 빛 내이시여 로동당시대의 전성기를 열 어주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대전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 으키시여 이 땅우에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이르는 곳 체계화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시여 신조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다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 르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겨레 를 자주통일과 민족대단결의 길로 이끄시여 우리 민족끼리의 6.15통 일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아시아와 세 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인류자주위업 을 실현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 여 조국통일의 구성으로,정의와 진리의 수호자로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였습니다.

3 변 으 로 계속

김 정 일 동 지 의 위 업 을 받 들 한 끝없는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가자 군 조 선 의

2 **면 에 서** 계 속

주체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적시 기에 혁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당과 혁명의 전도와 관련 되는 근본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민족사적업적으로 빛나고있 습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 여 마련하신 부강조국의 사상정신적, 물질적토대와 고귀한 창조물들은 영광 스러운 김정은시대의 무궁번영을 위한 영원한 밑천으로 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유산 이 있기에 주체조선의 존엄을 우주 에 떨치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세 기를 주름잡아나가는 긍지높은 오늘 이 있고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 일강국으로 솟아오를 우리 조국의 휘황한 래일이 있는것입니다.

김정일동지는 열화같은 사랑과 정 으로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뜨겁게 품어안으시고 한생을 초불처럼 깡그 리 불태우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 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조선 을 빛내이실 웅대한 포부를 안으시 고 혁명의 진두에 서신 때로부터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인간으로서, 혁명가로서, 령도자로서

겪을수 있는 온갖 시련을 다 겪으시 며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 으로 우리 혁명을 승리에서 승리에 로 이끌어오시였습니다.

수수한 야전복차림으로 사나운 눈 보라도, 삼복의 무더위도 가리심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희생적인 헌신의 자욱자욱에서 무진 막강한 국력이 마련되고 우리 인민의 존엄높고 행복한 삶이 꽃펴났습니다.



민족사와 인류사에 찬연히 아로새 겨질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고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 까지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과 같으신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천재적인 예지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

이끄시여 민족번영의 영광스러운 시대 를 펼치시고 주체위업완성의 만년초석 을 쌓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길이 빛날것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2년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산 악같이 펼쳐나 어버이장군님의 사상 과 념원을 구현하기 위한 장엄한 대 진군을 다그쳐왔습니다.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나갈 조선의 신념과 의지를 시대와 력사 앞에 엄숙히 선언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 력사를 펼치시고 어버이장군님의 유훈 관철을 위한 총돌격전에로 전 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 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가장 숭엄하고 훌륭히 꾸리며 어버이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들을 정중히 모시도록 이끄시 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장군님을 언제나 몸가까이 모시고 변함없이 장군님식솔로 사는 끌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도록 하심으로써 혁명의 뇌수, 인류 의 태양으로서의 어버이장군님의 절대적권위가 끝없이 빛나고 장군님 의 성스러운 선군혁명령도사가 변함 없이 흐르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 시고 최전연초소들과 대건설전투장 들에로 불철주야의 런속강행군을 이 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 인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안전이 굳건히 수호되고 장군님께서 구상 하시고 념원하시던 모든것이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혁명동지, 혁명전 우의 대부대로 뭉친 우리 군대와 인 민은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비약의 폭 풍을 일으켜왔습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속에서 성대히 진행된 뜻깊은 대정치축전들과 력사적인 회합들, 《마식령속도》 창조 의 불길높이 우후죽순처럼 일뗘선 훌륭한 창조물들은 어버이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만복의 씨앗들을 알찬 열 매로 가꾸며 사회주의부귀영화의 꿈을 보란듯이 실현해나가는 김정일조선의 자랑찬 모습, 약동하는 기상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주체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모시여

번영할것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영생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해와 달이 다하도록 받들어모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뗘 세우는것은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 들의 혁명적의무이며 숭고한 도덕의 리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 가며 장군님의 유훈을 찬란한 현실 로 꽃피우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합니 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 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투철한 신념 을 지니고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빛나게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버이장군님은 우리모두가 심장 으로 따르고 정으로 따를 위인중의 위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한생을 살아도 어버이장군님을 닮고 장군님 처럼 살며 일해나가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

우리 조국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철미 위대한 김정일동지식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 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결사관철 하며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가장 철저하게, 가장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드는것 은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근본담보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억척불변의 신념 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 에 한마음한뜻으로 철통같이 뭉치며 당중앙을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 견결한 투사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사업을 주체혁명의 생명선으로 확고히 틀어 쥐고나가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을 공세적으로 과감히 벌리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 적원칙, 계급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견지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 를 받들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모든 전선에서 세기와 년대 를 뛰여넘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 하여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 화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창조본때를 온 세상에 힘차 게 떨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새 세기 산업혁명과 전민과학기술 인재화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지 식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며 군민협 동작전의 위력으로 건설의 대번영기 를 펼치고 사회주의문명국을 상징하 는 훌륭한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 세워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패의 강군으 로 키우신 인민군대를 영원히 당과 그 위업을 굳건히 담보하는 억척의 지지점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며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 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 과 유훈을 받들어 조국의 자주적통일 을 기어이 실현하며 침략과 전쟁을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성스러 운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붉은기, 주체의 당기를 휘날리며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 에 굳게 뭉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동지의 연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고귀 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선군 혁명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총대로 길이 빛 내여나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습니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 간 군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여 우리 인민군대를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 튼히 준비된 세상에서 제일 강 하고 훌륭한 군대로 키우시고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쑤도 감 히 범접 못하는 불패의 군사강 국으로 전변시키시였습니다.

그 나날 언제나 최고사령부를 전선에 두시고 이 나라의 높은 산, 험한 령을 다 오르시고 세찬 풍랑과 눈보라를 앞장에서 헤쳐 가시며 병사들을 찾아 정을 나누고 고락을 함께 하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 헌신의 그 로고를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 시고 애국애민의 의지로 온몸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무적의 군력 과 불패의 군민대단결을 마련 하시여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 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업적은 태양조선의 만년재보로 찬연히 빛을 뿌릴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은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영생하시며 최후 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해와 달을 이어온 우리 과학자들은

지금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어버이장군님을 추모하며

천만년 장군님을 받들어모실 충

정의 맹세를 굳게 가다듬고있습

사상과 총대와 함께 과학기

술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고무해주고계십니다.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와 고결 한 충정을 지니시고 수령영생 위업의 새로운 장을 펼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후손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군대가 핵심 적역할을 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력과동지께 는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 으로 령도하시여 위대한 장군님 의 슬하에서 강철의 전투대오로 장성강화된 우리 인민군대의 무 진막강한 위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주시였습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

상강군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불멸의 대강과 중대강화를 위 한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고 선군의 산악 오성산과 서남전 선의 최대열점지역의 섬방어 대들을 비롯한 조국의 천리방 선초소들을 끊임없이 찾으시 여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필승 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백두산 혁명강군건설의 최전성기가 열려지고있습니다.

학 자 들

국가과학원 원장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되

새길수록 우리들은 북받쳐오르

주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들과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

놀라운 과학적예지로 우리들을

어버이장군님은 정보기술, 우

는 격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는 위대한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앞장에 우리 인민군대를 내세워주시고 《마 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도 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

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령도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 저히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무한대한 힘의 근본원천이며 최고사령관동지를 따라 나아갈 때 이 세상에 두려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는것이 우리 인민군장 병들의 가슴마다에 억척같이 뿌 리내린 절대불변의 신념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로 압살하려는 날강도 미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한평생 극악한 민족반역의 무리인 남조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면 서 품들여 마련해주신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불 을 수호하며 이 땅우에 통일 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는 우리 백두산혁명강군은 만일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 이며 의지입니다. »라고 말씀 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백두산 총대의 변할수 없는 최대의 사명으로 간직하고 천겹만겹의 성새.방패가 되여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 을 결사보위하겠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은 경애하는 그 누구도 모르며 그 어떤 천지

丑

장 철 동 지 의

개척자, 선구자이시였고 과학

자,기술자들의 눈을 틔워주고

세계를 압도하는 담력을 키워

주신 위대한 스승이시였습니다.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신념의 노래를 부르시며 최첨단

돌파의 초행길을 헤쳐가신

선견지명이 있었기에 온 나라에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이끌어주신 주체과학기술의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불굴의 의지와

하

풍파속에서도 오직 한분 최고사령관동지만을 받들어

하

우리들은 《당중앙의 기치아래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는 구호 를 높이 들고 전군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끝까지 생사 운명을 같이하는 진정한 동지부 대, 전우부대로, 당의 사상관철 전, 당정책용위전의 기수, 돌격대 로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나갈것입니다.

우리들은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최대의 격 동상태에서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계 일으켜 싸움준비를 백방 으로 다그치고 조국의 부강번영 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대고조 격전장들마다에서 불가능을 모 르는 혁명군대의 기개를 계속 힘있게 떨쳐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 선괴뢰들의 책동은 극히 무모한 단계에서 감행되고있습니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위업을 해치려는 가증스러운 원 쑤들을 조준경안에 걷어넣고있 적들이 우리 조국땅에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폭풍처 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단 숨에 달려나가 침략자들을 모조 리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 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

우리 인민군대는 오늘도 래일 도 영원히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백 승의 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밖에는 가겠다는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맹세합니다.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차넘치

고 과학기술강국에로 비약하

는 내 조국의 오늘이 있는것

CNC공작기계를 보시고 너무도

기쁘시여 몇번씩이나 박수를 쳐

주시고 CNC공작기계의 최첨단

어미기계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우리들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우

입니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준대도 리의 힘,우리의 지혜로 만든

하

모습,정깊은 음성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습니다.

진정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서 이룩된 모든 혁혁한 성과들 은 과학자, 기술자대부대를 품 들여 키워주시고 몸소 과학연구 종자도 안겨주시며 과학의 첨단 세계에로 돌진하도록 고무해주 시고 축복해주신 어버이장군님 의 무한한 헌신과 로고의 고귀 한 결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도 일 찌기,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결 을 떠나시였으나 장군님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의 새 세기 과학기 술대진군은 드팀없이 앞으로 전 진해나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심 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고 하시며 모든 부문 사업을 과학화하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수많은 보배로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워

찾아가겠다고 하시던 자애로운 독창적인 방침들을 제시하시였 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전례없는 과학 기술봉쇄와 악랄한 제재속에서도 첨단과학기술의 요새들을 련이어



점령해나가고있는 오늘의 빛나 는 성과속에는 과학자, 기술자 들에게 과학기술룡마를 마련해 주시고 비약의 날개를 달아주시 며 최첨단돌파전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습니다.

조국의 륭성번영에 크게 기여 한 과학자,기술자들을 나라의 주시고 꿈속에서도 그려보지 못 한 희한한 살림집도 안겨주시며 최상으로 우대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은 위대한

니다. 지금 우리 과학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과학기술정치 를 받드는 돌격대가 되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수가 되여 강성국 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결의로

사랑의 전설로 길이 전해질것입

가슴 불태우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조국앞에 지닌 사명과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김정일애국주의 를 높이 발휘하여 과학연구 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여 어버이장군님께서 나라의 과학 기술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 내여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혁명적 량심과 의리로 굳게 단결하여 참신하고 알찬 과학기술성과로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 어나가겠습니다.

그 어떤 어지러운 바람이 불 어오고 누가 뭐라든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과학자들의 혁명적신념과 의지 는 백옥처럼 빛을 잃지 않고 푸 른 소나무와 같이 변하지 않으 며 참대와 같이 곧음을 굽히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김정은시대 의 과학자답게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담력과 배짱을 안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공탑 을 높이 쌓아나감으로써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문명국, 과학기술강국으로 빛내이는 데 참답게 이바지하겠다는것 을 굳게 결의합니다.

겜 하 하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현상주동지의 연설

금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에 넘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굽이치고있습니다.

우 리 로 동 계 급 은 까지 불면불휴의 초강도강행군 어버이장군님께서 어느 하루, 어느 한시도 우리의 곁을 떠나 셨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으며 오 늘도 해빛같이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의 일터를 찾아주실것만 같아 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계와 성 강, 라남과 함흥, 강선과 락원을 비롯하여 로동계급이 살며 투쟁 하는 온 나라 대고조전투장들을 끊임없이 찾고찾으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과 믿음의 전설같은 이야기는 몇백, 몇천권의 책에

도 다 담을수 없습니다. 로동계급을 당의 부름이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있는 부 대,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기계 를 베고 죽는 가장 혁명적인 계 급, 금방석에 앉혀도 아깝지 않 는 나라의 보배라고 하시며 내세 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크나 큰 믿음은 우리 로동계급이 세상 을 들었다놓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한 생명수였습니다. 이 땅우에 일떠선 희한한 창 조물을 보실 때마다 우리 로동 계급이 정말 장하다고, 로동계 오면 축하의 꽃다발을 안고 급이 마음먹으면 못해내는 일이

온 나라 로동계급의 마음은 지 없다고 하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어버이장군님 의 해빛같은 그 미소, 그 은덕을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 지 않을것입니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



길을 이어가시며 온 나라에 새로 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 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 길, 함남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 르고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 계단으로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심하시 면 온 나라 로동계급이 산악같 이 떨쳐나서고 장군님과 우리 로동계급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천만시련을 뚫고온 위대한 혼연 일체의 서사시는 부강조국건설 사에 길이 빛날것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오늘도 래일도 였습니다. 영원히 우리 로동계급과 함께

계실것입니다.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늘의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로동계급 이 영웅적인 선봉대, 용감한 돌격 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며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고계십니다.

《마식령속도》창조의 열풍이 온 나라에 휘몰아치게 하시고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령도 의 손길은 오늘의 대고조전투장 그 어디에나 뜨겁게 깃들어있습 니다.

로동계급의 기름묻은 손을 허 물없이 잡아주시며 일을 잘하라고 신심을 주시고 새집들이한 로동자 의 가정을 찾으시고 한식솔이 되 여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우리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 게 고무해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경제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 시켜 우리 나라를 새 세기 경 제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우고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 워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

언제나 당중앙의 가까이에서

당과 숨결을 같이하며 철과 기 계로, 자랑찬 로력적창조물로 당과 사회주의를 옹위하는것은 천리마대고조시기로부터 이어 져온 우리 로동계급의 전통적인

기질입니다. 우리들은 어버이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란 조선로동계급의 숭고한 계급적사명감을 깊이 간 직하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장군님의 유훈과 념원 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밖에 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절대불변 의 신념을 간직하고 대세와 추 세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오 직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겠습니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 으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강국 건설의 들끓는 전구마다에서 시대 를 진감시키는 새 기적,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로동계급은 일편단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 를 충직하게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서 다진 맹세를 기어이 실천함으로써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으로 승리 하는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온 세상에 떨치겠다는것을 굳게 결

의합니다.

적 김정일동지를 전국각지에서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위대한 김정일동지 서거 2돐 을 맞으며 온 나라 천만군민은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어버이장군님을 가장 경건히 추모하였다.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 년학생들은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어버이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천만년 길이 빛내여갈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 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 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수도 평양을 비롯하여 각지에 모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동상 으로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 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대오가

끝없이 흘렀다. 군중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 을 판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 게 벌려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장군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 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 였다.

각지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 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반영한 회고모임, 회고음악회들 이 진행되였다.

량강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회고모임 《장군님 업적 만대에 빛나라》에서 출연자들은 대홍 단군을 찾으시여 감자농사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제대군인가 정에 태여날 아기의 이름도 지 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와 크나큰 은정을 가슴뜨겁 게 전하였다.

은 회고음악회 《태양의 모습 그립습니다》, 《영원한 태양의 품》을 펼치고 열화같은 사랑과 정으로 인민을 보살피시였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

와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출연자들은 설화와 노래 《아 그리워》, 녀성독창 《인민사랑 의 노래》, 관현악과 노래련곡 《우리는 잊지 않으리》, 《봄을

함경남도, 강원도의 예술인들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녀성5중창과 합창 《그리움은 끝이 없네》를 감명깊게 형상하여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장내에 차넘치게 하였다.

>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더욱 확신하게 하는 자강도, 평 안남도, 황해북도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녀맹원들, 청년학생 들의 회교음악회들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피아노와 합창 《백두의 말발

굽소리》, 혼성2중창 《매혹과 흠모》, 합창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등의 종목들은 세 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천만군민 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구가

하였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 을 굳게 믿고 따를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담 은 남성중창과 녀성방창 《당기 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 리라》는 관람자들의 가슴을 격 동시켰다.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녀 맹원들, 청년학생들의 맹세모임 들이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들에서 보고자와 토론자 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 서거 2돐을 맞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민족 번영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펼 치시고 주체위업완성의 만년

초석을 쌓으신 어버이장군님의 업적을 되새기고있다고 말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한걸음 의 양보도 없이 결사관철하여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울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태양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각계층 근로자 들과 청년학생들의 혁명적신념 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각지에서 진행된 행사들은

【조선중앙통신】

김정일동지의 서 거 2 돐 에 즈 음 하 여 위 대 령 도 자

동상과 대양상에

인민군장병 근로자들 각 계 층 소 년 학 생 들 꽃 바 구니 진 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2돐에 즈음하여 온 나라 천만군민은 혁명의 대성인이신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고

있다. 17일 각지에 모신 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에 인민군장병들, 각계 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 니와 꽃다발,꽃송이들을 진정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으 로는 희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 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넘친 군중 들의 물결이 굽이쳤다.

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굥화국 국방위원회 제 1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앞에 놓여 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 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 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 되였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 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등의 글발이 씌 여져있었다.

군중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 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절세위인들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 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수 대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 의 동상과 태양상들에도 군중의 물 결이 끝없이 이어졌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에 인민군부대, 기판, 기업 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 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각지의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위대한 대원수님들 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 을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 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 워나갈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회고음악회 대양으로 영생하신다》 진행 《장군님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2돐 국립교향악단 회고음악회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가 17일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음악회장소에는 민족최대의 추모 의 날을 맞으며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 수행에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차넘치고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우 당위원장, 내각, 무력기판 일군들, 수령영생위업실현에 공로있는 일군 들, 근로자들이 음악회를 판람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2돐 추모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조국

에 온 해외동포대표단들과 동포들, 연고자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 부 대표,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 제기구대표부부, 무관부부들이 여기 에 초대되였다.

음악회는 피아노협주곡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로 시작 되였다.

출연자들은 끝없는 헌신으로 부강 조국건설사에 빛나는 자욱을 새기시고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 민의 다함없는 흠모심을 장중한 울 림과 심원한 정서력으로 감동깊게 형 상하였다.

무대에는 교향조곡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중에서 제

3악장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제 4악장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제5악장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빨찌산식이로 다》등의 곡목들이 올랐다.

곡목들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혁명 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 로 탄생하시여 장장 수십성상 주체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관현악과 녀성독창 《매혹과 흠모》, 교향시《그리움은 끝이 없네》 를 들으며 판람자들은 언제나 인민 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며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초강도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 려와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 와도 사상과 뜻, 정과 의리로 맺어진 어버이장군님과 천만군민의 혈연의 뉴대를 끊을수 없으며 이 위대한 혼연 일체가 있어 선군조선의 백승의 력 사는 영원하리라는것을 확신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의 감정과 한없이 소중한 조국을 위 해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려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불타는 맹세를 반 영한 관현악 《조국찬가》의 장중한 선 률이 장내를 격동시키였다.

관현악 《발걸음》은 관람자들로 하 여금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당과 혁명 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빛을 뿌릴것이라는것 을 더욱 절감하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것이 며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신뢰심은 끝이 없 다는것을 잘 보여준 음악회는 합창과 관현악 《우리는 당신 밖에 모른다》, 《장군님은 태양 으로 영생하신다》로 끝났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걸어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 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령도자

금수산대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2돐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 무판 단,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 의 가족일행,중국항일혁명투쟁연 고자 주보중의 딸 주위가족일행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조국에 체류 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세계 자주화위업수행과 주체적해외교포운 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마음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 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 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삼가 인사 를 드리였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과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 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 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받들어모시리 어버이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2돐 추모대회와 추모회 각 도, 시(구역), 군, 련합기업소들에서 진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2돐 추모대회와 추모회가 17일 각 도, 시(구역), 군, 련합기업 소들에서 진행되였다.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을 맞으 며 전국각지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 는 그리움을 안고 추모대회, 추모회장소들로 모여들었다.

추모대회, 추모회장들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 내 이 자 !»,《위 대 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 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 까지 완성하자!》를 비롯한 구호 들이 추모대회,추모회장들에

추모대회. 추모회들에는 지방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 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나붙어있었다.

안 남 서

평안남도추모대회에서는 홍 인범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추모사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 들을 대표하여 장령 리흥섭, 로 동계급을 대표하여 득장청년탄 팡 지배인 전학철, 농업근로자 들을 대표하여 덕천시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위원장 현응실,청 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 맹위원회 부위원장 김명호가 결 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하늘같이 믿고 따르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너무도 뜻밖에 우리곁을 떠나신 때로부 터 2돐이 되였다고 말하였다. 김정일동지의 한평생은 주체

혁명위업완성을 위하여 헌신하 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혁명가의 성스러운 한생이였다 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 의 년대들을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이시며 로동당시대의 전성 기를 열어나가신 령도의 길에서 도안의 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안 북

평안북도추모대회에서는 리 만건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추모사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 들을 대표하여 장령 리금철, 로 동계급을 대표하여 신의주방직 공장 지배인 김창석, 농업근로 자들을 대표하여 룡천군 신암협 동농장 관리위원장 김영순, 청 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 맹위원회 위원장 리명호가 결의 연설을 하였다.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 으로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추모대회,추모회들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추모사에 이어 조선인민군, 로동계급, 농업근로자, 청년

학생대표들의 결의연설이 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가며 장군님의 유훈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 우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합 LICH. »

참 가 자 들 은 위 대 한 김정일동지를 선군태양으로 해 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받들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철 석의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 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산악같이 펼쳐나 어버이장군님의 념원을 실현하 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온 데 대하여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결사관철할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석탄공업부문에 선차적인 힘

을 넣어 화력발전소와 화학, 금 속공장들에 필요한 석탄을 원만 히 보장하며 새 탄발개발에 힘 을 넣어 생산장성의 전망을 열 어놓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개천시, 안주시, 숙천군, 문덕

군, 성천군, 맹산군을 비롯한 시, 군추모회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 와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 며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 양을 일으켜나갈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남흥 청년화학련합기업소 추모회들에 서 연설자들은 전력과 비료생산 을 늘여 부강조국건설에 참답게 도안의 인민들이 지난 2년간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도 서

연설자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은 더 욱 강렬해지고 력사의 12월에 다진 신념의 맹세는 백배천배로 굳세여지고있다고 말하였다.

도를 끊임없이 찾으시여 여러 부문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 란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마련하여주신 부강조 국건설의 사상정신적, 물질적토 대와 고귀한 창조물들은 영광스 러운 김정은시대의 무궁번영을 위한 영원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간직하고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생산에서 대혁신,대비약을 일으키며 당 의 은정속에 마련된 인민생활기

공장, 기업소들에서 《마식령

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야 할것 일으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섭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추모사 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군관 조관수, 로동계 급을 대표하여 3월5일청년광 산 지배인 렴인윤, 농업근로자 들을 대표하여 도농촌경리위원 회 위원장 박경일, 청년학생들 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일이 결의연설을

든하였다고 말하였다.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 나갈 조선의 신념과 의지를 시 대와 력사앞에 엄숙히 선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령 영생위업실현의 새 력사를 펼치 시고 어버이장군님의 유훈 관철 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힘차 게 불러일으키시였다고 강조하

황 해 남

황해남도추모대회에서는 박 영호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추모사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 병들을 대표하여 장령 리재성.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재령광산 지배인 최남선, 농업근로자들 을 대표하여 안악군 오국협동 농장 관리위원장 황윤남, 청년 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 위원회 부부장 최충심이 연설 하였다.

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과학기술발전에 힘을 넣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 화, 과학화수준을 높이며 군민 대단결을 더욱 강화해나갈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룡천군, 태천군, 창성군, 평안북 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구장지 구탄광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 기업소 등에서 진행된 추모회에서 연설자들은 모든 힘을 농사에 총 집중, 총동원하고 농사일을 주체 농법의 요구대로 하며 지방의 원 료로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

이 생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간석지건설을 다그치고 석탄 과 현대적인 기계제품생산, 국 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릴것이라고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결

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혁

명정신으로 생산과 건설, 인민

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며 자기의 일터와 마을.

거리들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데

희천시, 만포시, 우시군, 초산

군, 화평군, 장강군 등에서 진행

된 추모회들에서 연설자들은 당

의 은정속에 마련된 축산물,인

민소비품생산기지들을 활성화

하여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

벌,세벌농사와 감자농사를 잘

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

깊이 새기고 우리 군대와 인민

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혁명동

지, 혁명전우의 대부대로 뭉쳐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왔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주체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은 영원한 태양의 나

라로 번영할것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생하실것이라

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하여 언급하였다.

말하였다.

강 도 서

자강도추모대회에서는 김춘 였다.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 로 철통같이 뭉치며 우리 당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할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6월 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신다는 신념의 기둥이 있었기에 엄혹한 시련이 겹쌓인 속에서도 천만군민의 마음은 든

어버이장군님께서 자강도는 고난의 행군시기 자신에게 정든 고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고 한해에도 여러차례 찾아주시며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도 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 여 언급하였다.

에서 담보를 마련하신데 대하여 언

급하였다.

말하였다.

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선군을 한평생의 드팀없는 혁명신조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 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여 민 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말하였다.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 준을 높여 농업생산을 늘임으로 써 도를 나라의 알곡생산기지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관리운영을 잘할것이라고 말하

황해북도추모대회에서는 박 태덕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추모사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 병들을 대표하여 장령 리경 원,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황해 제철련합기업소 분공장장 윤 재원,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 여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관 리위원장 송윤희, 청년학생들 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 회 위원장 리광철이 결의연설

을 하였다. 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 가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강렬해지고있다고 말하였다.

였다.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하였다.

서

강원도추모대회에서는 박정 남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들을 대표하여 장령 오병철, 로 지배인 강익만, 농업근로자들 을 대표하여 고산군 연호농장 관리위원장 손금월, 청년학생 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 회 위원장 육영철이 결의연설 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지난 2년은 우 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으로 높이 모시고 일편단심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언제나 우러르고 꿈결에도 그리며 어버이장군님과 함께 투쟁하고 승리하여온 나날이였다고 말하

였다.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높이 받들 어나가며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싸움준비를 완성하고 대고조격 전장들마다에서 혁명군대의 기 개를 남김없이 떨쳐갈것이라고

는 김정은시대의 리수복, 강호

재령광산을 비롯한 공장, 기 업소들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생 산을 정상화하며 남새온실, 버 섯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고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애의 마지막

천만군민은 어느 하루, 어느 한시도 어버이장군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고 생각해본적 이 없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절대적 권위가 끝없이 빛나고 장군님의 성스러운 선군혁명령도사가 변함없이 흐르고있다고 강조하

인민군장병들과 도안의 인민 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추모사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 동계급을 대표하여 문평제련소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지니 시고 도내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도안의 청년학생들이 조국이 기억하는 애국자로 삶을 빛내이 며 준엄한 결전의 시각이 닥쳐 오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우

영이 될데 대하여 말하였다. 연안군, 재령군, 안악군, 신천 군, 벽성군 등의 추모회들에서 연설자들은 당의 령도를 쌀로써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열의안고 농사를 잘 지으며 부강조국건설 에 모든것을 바쳐가겠다고 강조

하였다.

가장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내여

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혁명의 력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 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당 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을 과감히 벌리며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할것이라고 강조하

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며 특히 지방공업공장들을 활성화하고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밀고나

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선군시대 본보기농장의 영예 를 계속 빛내이며 지대적특성에 맞게 농업을 발전시키고 선진적 인 영농방법들을 받아들여 정보 당 알곡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 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학생들은 례성강발전소. 정방산호텔을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장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강성국가건설의 믿 음직한 역군으로 준비할것이라 고 말하였다.

황주군, 연탄군, 은파군, 신계 군, 평산군, 곡산군 등에서 진 행된 추모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을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당정책 을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혁명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적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강조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다고 강조하 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도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이 불굴의 정신력, 자력갱생의 혁 명정신을 발휘하여 강원땅에 놀 라운 전변을 안아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 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 충직하게 받드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 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라고 말하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어떤 천지풍 파속에서도 원수님만을 절대적 으로 믿고 따르며 당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 쟁을 힘차게 벌릴데 대하여 강 조하였다.

인민군군인들은 만일 적들이 우리 조국땅에 한점의 불꽃이 라도 튕긴다면 단숨에 달려나 가 침략자들을 모조리 쓸어버 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게 만단의 전투준 비를 갖추어야 할것이라고 말

하였다. 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세 기와 년대를 뛰여넘는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헌신적 으로 노력하며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갈데 대하여 언 급하였다.

경

함경남도추모대회에서는 태 종수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추모사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 병들을 대표하여 장령 정현 일,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2.8 비날론련합기업소 지배인 장 명학,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 여 함흥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한인철이 결의연설을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존함은 조국수호, 사회주의수호의 필승 의 표대가 되고 장군님의 태양상은 강성번영할 래일에 대 한 신심을 안겨주는 힘의 원천

이였다고 말하였다. 한평생 초강도강행군길을 를 끊임없이 찾고찾으시여 력사 의 기적들이 창조되게 하시고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지방 현지지도의 자욱도 도에 새기신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인민군장병들과 도안의 인민들은 지난 2년간 어버이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고 말하였다. 이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경

함경북도추모대회에서는 오수 용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추모사 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 표하여 장령 장계현,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청진강재공장 지배인 김 효,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청 진시 송평구역 송향협동농장 관리 위원장 최란영, 청년학생들을 대 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송태철이 결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민족번영의 영광스러운 시대 를 펼치시고 주체위업완성의 만년초석을 쌓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 생애와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전연초소들과 대건설전투 장들에로 불철주야의 현속강행

마식령스키장건설을 하루빨 리 완공하고 세포등판개간, 고 산과수농장능력확장공사, 원산 군민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 쳐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 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

문천시, 판교군, 회양군, 안변 군을 비롯한 시, 군추모회들 에서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르는 길에 최후 승리가 있다는 철리를 가슴깊이 새기고 강원땅을 일하기도 좋 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락원 으로 전변시킬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도 М 서 따르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 다는 철리를 심장깊이 새기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장병들과 도안의 인민들 이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단천지구 광산들과 수동, 금야지구의 탄광들에서 굴진과 박토를 확고히 앞세우고 다량락광, 다량처리하여 더 많 은 광물과 석탄을 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갈 데 대한 당의 호소따라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도시건설을 통이 크게 밀고나가며 인민소비품생 이어오신 어버이장군님께서 도 산을 늘이고 농업과 축산, 과 수, 수산업발전에 힘을 넣을데

단천시, 함주군, 덕성군, 정평 군, 리원군, 흥남비료련합기업 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 검덕 광업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시. 군, 련합기업소들에서 진행된 추모회들에서 연설자들은 대중 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 게 실현해나갈 결의를 표명하

였다. Ы 서

군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 여 나라의 안전이 굳건히 수호 되고 어버이장군님께서 구상하 시고 념원하시던 모든것이 눈부 신 현실로 펼쳐지고있는데 대하 여 언급하였다.

인민군장병들과 도안의 인민 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완성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철,성강을 비롯한 금속공 업부문의 로동계급이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철강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5 면 으 로 계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2돐 재일본조선인중앙추모모 임이 17일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 서 엄숙히 거행되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모임장소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 호가 나붙어있었다.

추모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의장, 남승우부의장, 배익 주부의장, 박구호부의장, 배진구부의 장 겸 사무총국장, 홍인흠 총련중앙 감사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총 런중앙 국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책 임일군들, 간또지방 총련본부 위원장 들과 일군들,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 으로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추모모임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허종만의장이 추모사를 하였다. 그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하늘처 럼 믿고 따르던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과 피 눈물속에 영결한 때로부터 어느덧 2년이 되였다고 말하였다.

한없이 인자하고 친근하신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러르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2돐

일 본 조 선 인 중 앙 추 모 모 임 엄 숙 히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이어온 지난 2년간은 온 겨 레와 더불어 우리 재일동포들이 얼 마나 걸출한 희세의 위인을 모시여 왔는가를 더욱 뜨겁게 절감한 나날 이였다고 피력하였다.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다 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가장 숭고 한 경의와 영생기원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 생애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심 장을 더더욱 격동시키고 자나깨나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벅차 오르게 하는것은 장군님께서 언제한 번 편히 쉬지 못하시고 초인간적인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시대와 력사 앞에 너무나도 커다란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 과 같이 강조하였다.

눈보라 휘몰아치는 백두광야에서 탄생하신 그때로부터 오로지 조국의 운명을 책임지고 빛내이시기 위하여 심혈을 다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전생애는 한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지키는 결전장에서 사시고 인민의 부귀영화를 위해 달리는 야전렬차에 서 순직하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의 한생이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 와 정력적인 탐구로 위대한 수령님 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 하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더 욱 발전풍부화하시여 조국과 민족,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선군정치를 사회 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신 백두의 천출령장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련 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공세가 악랄 하게 감행된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 기에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붉은기를 수 호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주체조선을 불패의 일심단결로 다져진 정치사상 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인 민군대를 천하무적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고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 히 건드릴수 없는 막강한 자위력을

가진 세계최강의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 사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였다.

어버이 김정일대원수님은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들에 게 세상에 부럼없는 강성국가를 안 겨주시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 까지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길을 걷고걸으시여 조국땅에 반만년민족 사에서 처음되는 일대 번영기를 펼 쳐주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은 6. 15북남공동선 언과 10.4선언을 마련하시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구현된 6.15통 일시대를 열어주신 조국통일의 구성 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탁 월한 대외활동으로 21세기의 정치흐 름을 쥐락퍼락하시였으며 세계의 평 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인 류자주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것 으로 하여 희세의 정치원로로 만민 의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아오 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주체위업에 영구 불멸의 생명력을 부어주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장래 를 내다보시여 인류정치사가 알지 이다. 못하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위대한 귀감을 창조하시였으며 령도의 계승 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심으로써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행군길을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현시대는 물론이고 먼 미래에도 커 다란 생명력과 견인력을 가지는 불 멸의 혁명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꿋꿋이 이어나갈 만년초석을 마련해

그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주 체적인 재일조선인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 들의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 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총련의 걸음마 다 그 앞길을 밝혀주신 강령적말씀 과 방침은 세계해외교포운동사에 새 로운 경지를 열어놓은 독창적이며 백과전서적인 사상리론이다.

조국인민들과 더불어 총련일군들 과 재일동포들이 어버이장군님과 영 결한 너무도 큰 아픔을 이겨내며 새 걸음을 내디딜수 있은것은 또 한분

여 언급하였다.

의 백두산천출위인이 계시였기때문

어버이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굳건 히 계승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통찰 력과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주체위업 을 최후승리에로 현명하게 령도하시 는 걸출한 정치가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거장이시다.

총련이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단체 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여 세계 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더 욱 높이 떨치기 위한 근본담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믿고 따 르며 애족애국운동에 원수님의 사상 과 뜻, 신념과 의지만이 차넘치도록 하는것이다.

우리는 어버이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깊이 새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원수님밖에는 누구도 모른다는 견결한 신념을 지니고 총 련을 원수님과 기쁨도 슬픔도 시련 도 함께 하는 충정의 대오로 튼튼히 다질것이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를 개척하는것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숨결과 보폭을 같이하여 어버이장군님께서 밝혀주신대로 민족교육사업과 새 세 대,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을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3대주력사업으 로 틀어쥐고 빛나는 사업실적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충정의 보고를 올릴것이다.

총련에 남기신 간곡한 유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심장속 에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고계신다.

그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생애와 장군님께서 재일조선인운동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천세만세 빛 내여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추모모임에서는 각계층을 대표하 여 김차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 상임위원회 위원장, 강추련 재일본조 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 원장, 리정만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신입리사회 리사장, 리영훈 총련 가 나가와현본부 위원장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추모모임은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날 오사까, 효고, 교또, 아이찌, 이바라기, 히로시마, 후꾸오까, 혹가 이도를 비롯한 각지 총련본부들에서 추모모임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도쬬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

4 면 에 서 계 속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 이 생산하기 위한 사회주의증 산경쟁을 활발히 벌리며 새해 농사차비를 실속있게 하고 알 곡증산에 모든것을 바칠것이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청진 시 포항지구에 살림집들과 편의 봉사기지들을 훌륭히 일떠세우

량강도추모대회에서는 리상 원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추모 사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장령 홍찬길, 로동계급 을 대표하여 도직맹위원회 위원 장 박경호, 농업근로자들을 대표 하여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안문학,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장명 호가 결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주체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당과 혁명

고 애국의 한마음으로 거리와 마을, 일터를 더욱 아름답게 꾸 려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회령시, 김책시, 경성군, 무산 팡산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 기업소,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 소 등의 추모회에서 연설자들은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튼튼히 꾸리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것이 라고 강조하였다.

의 전도와 관련되는 근본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특출 한 민족사적업적으로 빛나고있

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사가 집대 성되여있는 량강도를 혁명전통 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꾸려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량강땅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 시며 도내인민들에게 보다 유족 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를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산악같이 떨쳐나 장엄한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왔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 를 구현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 의 불굴의 기상과 창조본때를 힘차게 떨쳐나갈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 을 받들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 지,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 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홍단식과학농법을 적극 받 아들여 감자농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며 지방공업공장 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시, 군소 재지들과 농촌마을들을 특색있 게 꾸릴데 대하여 말하였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 을 비롯한 사회주의대건설장들 마다에서 선군청년전위의 기개 를 남김없이 떨쳐갈것이라고 강 조하였다.

삼지연군, 대홍단군, 백암군, 풍서군, 갑산군 등의 추모회들

남포시추모대회에서는 강양 모 시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추모 사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군판 남인철, 로동계 급을 대표하여 천리마제강련합 기업소 기사장 송명호, 농업근 로자들을 대표하여 와우도구역 소강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고광 일,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남 포수산대학 학생 한충권이 결의

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남포시의 여러 굣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시를 항 구문화도시로 더 잘 꾸리기 위 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 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에서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에 끝없이 충직하며 백두대지를 인 민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사회주의란워 이로 꾸려갈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수공장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라도 삼복의 무더위도 가림없이

혀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애국헌신이 있어 우리

조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이 마련

되고 인민의 행복한 삶이 꽃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구상

과 념원이 수령영생위업실현의

났다고 강조하였다.

야전복차림으로 사나운 눈보

새기시였다고 말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만복의 씨앗들을 알찬 열매로 가꾸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선을 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갈것이라 찾으시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의 봉화를 지퍼주시고 대안중기 계련합기업소, 금성뜨락또르공 라선시추모대회에서는 림경 장, 대안친선유리공장, 강서약

만 시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추모 사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군판 차학수, 로동계 급을 대표하여 라선세멘트공장 지배인 전동주,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라진지구 후창농장 판 리위원장 량경범,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라진해운대학 학생 리 성태가 결의연설을 하였다.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빛나

는 혀실로 펼쳐지고있는데 대하

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단

어버이장군님을 추모하며 천만

고 말하였다.

천리마구역, 대안구역, 강서 구역, 와우도구역, 항구구역 등 에서 진행된 추모회들에서 연설 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 길높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 활향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 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년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실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있는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사상과 뜻, 정과 의리로 맺어 진 어버이장군님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혈연의 억센 뉴대를 끊 을수 없고 이 위대한 혼연일체 가 있어 선군조선의 백승의 력사 는 영원하리라는것은 지난 2년 간 천만군민이 심장깊이 새긴 절 대불변의 진리라고 말하였다. 어버이장군님은 우리모두가 심장으로 따르고 정으로 따를 위인

중의 위인이시라고 하면서 장군님 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 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경 제무역지대개발과 활성화를 위 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화을 일 으키며 우리의 사상진지,계급 진지를 더욱 억척같이 다질것이 라고 말하였다.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 고 경제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 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 화하고 시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러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주체혁명위 업의 완성을 위해 더욱 힘차게 싸

워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추모대회, 추모회들은 《장군님 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 원인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 김국태동지의 장의식이 16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

장의식장인 서장회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 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 명적신념과 의리로 받들어온 김 국태동지를 잃은 비애에 휩싸여 있었다.

장의식에는 김영남동지, 박

봉주동지, 최룡해동지, 리영길 동지, 장정남동지, 김기남동 지, 최태복동지, 박도춘동지, 김영춘동지, 양형섭동지, 리용 무동지, 강석주동지, 오극렬동 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김평해동지, 곽범 기동지, 문경덕동지, 최부일동 지, 김창섭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 최영림동지, 현철 해동지, 리병삼동지, 주규창동 지를 비롯한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과 고인의 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 인의 령구옆에 서있었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유가 족들이 고 김국태동지를 추모하 여 묵상하였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고인 의 령구가 발인되였다.

였다.

김국태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성장하 여 당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 과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 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 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는 그가 투철한 수령판과 높은 실력으로 우리 당과 혁명에 커 다란 공적을 쌓은 아버지처럼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며 주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 하기 위한 투쟁의 제일선에서 억세게 투쟁해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관, 전우 관을 그대로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 국태동지가 로당익장하면서 당 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 쟁의 한길에서 생을 빛내여나가 도록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수도시민들은 당과 수령에 대 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

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확 고한 혁명적원칙성과 겸손한 품 성을 지닌 김국태동지를 잃은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애석한 마음을 금할수 없어 발 《령구에 들어 총!》을 하 걸음을 멈추고 깊은 애도의 뜻

령구차는 애국렬사릉을 향하 을 표시하였다. 며났다. 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 렬해있었다. 영결식이 진행되였다.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조선로 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 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 동지가 애도사를 하였다.

추도곡이 주악되고 조총이 발 사되는 속에 고인의 유해가 묘 지에 안치되였다. 고인의 유가족들, 국가장의위

원회 성원들이 흙을 덮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묘에 진정되 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과 여러 단위의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고 김국태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김국태동지는 비록 서거하였 으나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 민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 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 명적신념과 의리로 받들어온 김

국태동지와 영결하게 됩니다. 성스러운 주체혁명의 길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 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 쟁하여온 김국태동지는 그렇게도 념원하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 리와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한 채 심장의 고동을 멈추고 애석하 게도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김국태동지와 영결하게 되는 이 시각 우리들은 일편단심 자 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민고 따르며 주체혁명위업의 승 리를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온 귀중한 혁명동지를 잃은 슬픔을 금할수 없으며 북받치는 애도의

정을 누를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여 김국태 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당과 혁명을 위하 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 의 한생을 다 바쳐왔다는 값높 은 평가를 주시였습니다.

김국태동지는 우리들, 당의 혁 명전사들가운데서도 가장 복받 은 행운을 누린 전사였습니다. 동지는 아버지가 위대한 수령님 을 높이 모시고 조국해방성전에 _ 서 영웅적으로 싸우는 선봉투사 이라는 죄 아닌 죄로 하여 갖은

박해와 모진 가난속에서 헤매이 던 불쌍한 소년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안아 오신 조국해방의 광휘로운 해빛 은 동지를 배움과 광명의 길로 이끌어 나라의 기둥감으로 성장 시킨 생명소로 되였습니다.

김국태동지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운 품속에 서 만복을 누리며 자라난 새시 대 일군이였으며 위대한 장군 김정일동지의 가장 가까이에서 남다른 믿음과 사랑을 받으며 한생을 살아온 전사였습니다. 김국태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혁명의

오늘 우리는 커다란 슬픔속에 지휘성원으로 성장하여 당과 혁 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헌신 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 김국태동지는 전후 당에 정면 으로 도전하여나선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들의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원칙적인 투쟁을 벌려 당 과 수령의 사상과 권위를 견결 옹호보위하였으며 사회주의 전면적건설시기 당중앙위원회 와 인민군대, 인민보안기관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하면서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혁명무력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 기여

> 하였습니다. 김국태동지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지던 시기 당중앙위원 회와 당간부양성기관의 책임일 군으로 일하면서 당의 기초를 축성하며 우리 당의 과학교육정 책과 간부정책을 철저히 관철하 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혜와 정 열을 바치였습니다.

김국태동지는 1990년대초부 터 당중앙위원회 비서, 당중앙 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의 중 책을 력임하면서 당을 조직사상 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혁명대오 의 일심단결을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김국태동지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철저히 무장하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중앙 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참다운 혁명전사는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실천적모 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김국태동지는 당과 수령에 대

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

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확고한

로 하여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김국태동지의 한생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정 치적신임과 친어버이사랑속에 서 혁명전사의 가장 큰 영예와 값높은 삶을 빛내여온 보람찬

한생이였습니다.

구옆에 서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적원칙성과 겸손한 품성으 는 김국태동지를 크게 믿으시고 당중앙위원회 비서, 정치국 위 원의 중임을 맡겨주시였으며 투 철한 수령관과 높은 실력으로 우리 당과 혁명에 커다란 공적 을 쌓은 아버지처럼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며 주체혁명위

시

선

연설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 모두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도

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시

켜주시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김

국태동지가 당원의 영예를 지닌

날에는 동지의 집을 몸소 찾으

시여 김책동무의 집안에 당원이

한명 더 생겼다고, 집안의 큰 경

사라고 뜨겁게 축하해주시였으

며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던

날에는 교복과 신발, 학용품을

친히 마련해주시고 대학시절의

귀중함과 학생의 본분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친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

방전쟁이 일어나자 전선에 나가

싸우겠다는 김국태동지의 간절

한 청을 들으시고 자신의 지시

에 절대복종하라고 하시며 류학

의 길로 떠밀어보내시였으며 조

국에 돌아왔을 때에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일하자고,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되였으니 정말 기쁘

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최고참모

부에서 일하도록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였습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

과 혁명앞에 특출한 공훈을 세

운 김책동지를 한생토록 잊지

못하시면서 김국태동지의 친아

버지가 되시여 사업과 생활을

언제나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으

며 당과 무력기관의 중요직책에

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

임을 다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

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제일선에서 억세게

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모의 정을 부어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키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투쟁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 는 20살이 넘도록 문맹자로 남 습니다. 아있던 김국태동지를 평양학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준엄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초도 와 오성산, 철령을 비롯한 전선 시찰의 길에서 김국태동지를 곁 에 세워주시고 선군혁명의 심원 한 진리를 심어주시면서 당의 선군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 가는 참된 혁명동지로 키워주시

였습니다. 김국태동지가 난치의 병으로 고통받고있을 때에는 여러차례 다른 나라에까지 보내시여 치료 를 받도록 해주시고 기회가 있 을 때마다 보약과 색다른 식료 품을 안겨주시며 동지의 건강과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돌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 심한 보살피심속에서 동지는 오 랜 기간 당과 혁명의 중요한 직 책에서 생의 뚜렷한 흔적을 남

길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판.전우판을 그대로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국태동지 가 로당익장하면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한 길에서 생을 빛내여나가도록 대 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 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년로한 김국태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 국 위원으로, 당중앙위원회 부서 책임일군으로 변함없이 내세워주 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 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오랜 당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 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김국태동지의 건강에 대하여 늘 마음쓰시며 온갖 치료대책과 은정어린 조치를 거듭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지가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면서 장 의행사조직에서 제기되는 문제 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동지의 령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고 장의를 국자 으로 하며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장하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사

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지지도강행군길에서 돌아오시 는 길로 김국태동지의 령구를 찾 으시고 고인을 추모하시며 일편 단심 변함없이 백두산절세위인들 **읔 밴옥같은 충정으로 반들어오** 동지의 한생에 대한 값높은 평 가를 주시였습니다.

김국태동지가 받아안은 공화 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과 국기훈장 제1급 을 비롯한 많은 훈장과 표창들 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 을 다 바친 동지의 숭고한 충정과 무한한 헌신성에 대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믿음의 증

표입니다. 참으로 김국태동지는 헌 베잠 뱅이를 입고 터갈라진 맨발로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긴 그날로부터 생의 마지막순 간까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하 늘같은 사랑과 배려속에서 혁명 전사의 가장 값높은 삶을 누려 왔으며 생을 마친 다음에도 수령과 인민의 추억속에 영생하 는 삶을 누리게 되였습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 의 권위와 일심단결의 위력이 백배해지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될 최후승리의 날이 바야흐 로 다가오고있는 때에 김국태동 지와 같은 로혁명가를 잃은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큰 손실로 됩니다.

우리는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 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한생을 바친 김국태동지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동지가 다하지 못한 몫까지 합쳐 강성국가건설대전 의 승리와 선군혁명위업의 완성 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해 나갈것입니다.

김국태동지는 비록 서거하였 으나 동지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공적은 길이 남 아있을것입니다.

고 김국태동지여!

고이 잠들라. 주체102(2013)년 12월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 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 장 김국태동지의 서거에 즈음하 여 15일 당, 무력, 정권기관, 근 로단체, 성, 중앙기판 일군들과 항일혁명투사들, 각계층 근로자 들이 고인의 령구를 찾아 조의 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 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었으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항일혁명투사들, 각계층 근로자들 김국태동지의 령구를

丑

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끝없 이 충실한 혁명전사를 잃은 크 나큰 슬픔을 안고 조객들은 조 의식장인 서장회관을 찾았다.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

교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인민무 력부, 인민보안부, 성, 중앙기관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놓여

령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 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령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객 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직 하게 받들어 생명의 마지막순간 까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 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바친 고 김국태동지를 추

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였다.

주조 외교단, 국제기구대표들과 해외동포들 김국태 동 지 의 령 구 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당중앙위 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 김국태동 지를 추모하여 주조 외교단, 국제 기구대표들과 해외동포들이 15일 고인의 령구가 안치되여있는 서장

회판을 찾아 조의를 표시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령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 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령 구옆에 서있었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화환들을 진정한 다음 당과 수령 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모

든것을 바쳐 투쟁한 고 김국태동 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조의록에 글을 남기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자주화위업과 더불어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불세출의 위인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 서거 2 돐 에 즈 음 하 여 의 ス

밝혀주었으며 그이께서 펼치신

전횡을 짓부시고 진보적인류에

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

업적은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인

민들의 투쟁과 더불어 영원불멸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회고모임

丑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사회주의건설과 경제적발전을

가로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

그러나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반드시 승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최근 방

글라데슈인사들이 담화를 발표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김정일각하께서 서거하신

가리브 네와즈는 다음과 같이

2돐을 맞으며 우리는 조선혁명

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쌓아

올리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김정일각하는 위인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높이에서 지니시고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조선당과 군대, 인민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그이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

김정일각하는 한평생 반제반

그이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원장 엠. 자한기르 칸은 다음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

의 심장속에 길이 빛날것

감회깊이 회고하고있다.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다.

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이 채택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주었다.

할것이다.

악하고있다.

하였다.

언급하였다.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의 강권과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서거 2돐에 즈음하여 뻬루 리 마. 나이제리아 에누구주와 나싸라와주에서 9일과 11일에 독보회,영화감상회가 진행되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 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 들이 모셔져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조선은 피눈물로 말한다》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뻬루로동자, 농 민, 학생인민전선, 사회혁명당,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뻬루민족 독립운동, 김정숙도서관, 나이 제리아 에누구주 김정일도서실, 나싸라와주 나가리농목장의 인 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뻬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 전선 총서기 등 인사들은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공화 국을 그 어떤 대적도 범접할수 없는 사회주의보루로 더욱 굳건히 다지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반드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나이제리아 에누구주 김정일도서실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에 젖어있다.

조선의 번영과 인류자주위업 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그이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만민의 마음도 날을 따라 강렬 해지고있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 갈 때 김정일각하의 위업은 반드시 완성된다는것을 확신하

고있다.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완성할수 있는 결정적담보

나이제리아 나싸라와주 나 가 리 농 목 장 지 배 인 은 리라고 확신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김정일각하의 생애는 인민을 위한 한평생이였다, 그이께서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단마르크, 민주꽁고에서 7일 과 9일 회고모임이 진행되

모임들에는 로씨야 까렐리 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 선협회, 군대지지운동 까렐리야 지부, 로병기금 까렐리야지부, 해군로병동맹 까렐리야지부, 김정일동지회고 단마르크전국 위원회, 단마르크의 공산당, 위대한 김정일대원수회고 민주꽁고위원회,민주꽁고-조선친선 및 런대성협회의 인사 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 까렐리야-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윅또르 예고로브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고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대오로 키우시

그이의 정력적인 선군령도에 의하여 조선은 핵보유국으로 되고 강성국가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로조관계발 전에 기여하신 공헌을 로씨야인 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김정일동지회고 단마르크전 국위원회 공동위원장 안데르스

하였다. 단마르크인민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돌이켜보고있다.

크리스텐센은 다음과 같이 언급

김정일동지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탁월한 사상리론가, 령도의 거장이시였다.

그이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조선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나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국가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

민주꽁고-조선친선 및 련대 성협회 위원장 오뗴뗴 가스통 음보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

세계정치사는 수많은 위인들을 배출하였지만 특출한 정치실력 을 지니신 김정일령도자와 같은분은 일찌기 찾아볼수 없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시였기 에 세계는 자주시대, 주체시대 를 맞이할수 있었고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 설수 있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발전풍부

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벌가리아 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아 따나스 이와노브가 최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김정일동지의 서거일을 맞으며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그이께서 조국과 인민,사회 주의위업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보고있다 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생불멸 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 시키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을 물리치고 조선 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을 사회주의의 한길로 이끄 시였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에 대처하여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였다.

선군정치는 적대세력들의 침 략책동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였으며 강성국가건설에 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누구나 조선을 방문하면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부 강조국건설에서 거둔 성과들을 목격할수 있다. 수도 평양은 현대적인 건축 물들을 가진 세계적인 도시로

전변되고있으며 무료교육, 무 미투쟁과 조선의 사회주의건설 상치료 등 조선의 사회적시책 을 승리에로 이끄신 탁월한 들은 만사람의 찬양을 받고 정치가이시다. 있다.

김정일동지의 로교에 의하여 자신의 가장 큰 소원으로 간주

화하신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 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중에게 나아갈 길을 휘황히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그이의 서거는 조선인민뿐아 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비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하시였지만 위대한 사상과

서거 2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에티오피아신문들이 절세위인의 태양상을 모시고 특집하

로씨야신문 《쁘라우다 쁘리

모리야》10일부는《사회주의 의 견결한 수호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심화 발전시키시여 자주시대의 지도 사상으로 더욱 빛내이시였다고 하면서 그이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해 과학으로 서의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불패성이 론증된데 대하여 전하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인민대중중심 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수호 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신데 대하여 상세히 서술 하였다.

로씨야신문 《꼼쏘몰스까야 쁘 라우다》10일부는《세계 모든 나라들에서의 자주성실현의 불멸의 기치》라는 제목으로 다 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력사 적인 로작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LHOH가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30년세월이 흘렀지만 그이의 저서는 지금도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선군조선의 위용을 남 김없이 떨치였다.

조선에서 일어난 세기적변혁 들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사회주 의위업실현의 가장 과학적이고 옳바른 사상임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있다.

신문은 제국주의반동들이 세 계도처에서 다른 나라의 자주권 을 무참히 유린하고 침략전쟁을 도발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진 보적인류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 다 단결하여 맞서싸울것을 요구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 이 계속하였다.

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나 라의 평화적통일과 강성국가건 니라 전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있 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 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를 걸고드는 미국과 그 추종세 력들의 악랄한 도발책동속에서 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켜냈으며 핵억 제력을 보다 강화하였다.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 뗘한 제재와 봉쇄, 군사적위협 에도 굴복하지 않고 맞받아나아 가는 불굴의 신념, 완강한 의지 를 세계에 과시하였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위업실현 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있는것 을 당당히 자부하면서 주체사상 과 서군정치로 존엄높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더욱 빛내여갈 각오로 충만되여있다. 에티오피아신문 《리포터》

7일부는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국방위원회를 중추 로 하는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 신데 대하여, 나라의 정치사상진 지를 반석같이 다지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전 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 을 진두에서 지휘하신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전체 조선인민과 인민군장병 들은 김정일각하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과 강성 국가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하 며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선군혁명령도에 충실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고 신문은 강조하 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 라 신문이 특집하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 4일부 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 그이께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함께 인민군부대들을 시찰 하시는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생하실 것이다》라는 표제밑에 옹근 한면 특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령도자의 선군령도 조선을 필승불패의 나 라로 전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인민은 평화적위성발사 조선인민군을 백두산혁명강군 의 위인이시였으며 오로지

우리는 김정은각하의 선군령도 으로,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김정일령도자를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 로씨야신문 《나호드낀스끼 라보치》 11일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부는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일령도자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하시였으며 조선로 동당을 백전백승의 향도적력량 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조직성과 규률성 이 강한 전투적당으로, 인민대 중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 고 보살피는 어머니당으로 되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방력강 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시여 조선인민군을 강위력한 전쟁억 제력을 갖춘 무적의 혁명강군으 로 준비시키시였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연구 기네전 국위원회에서 최근 뷸레찐특간 호를 발행하였다.

뷸레찐은 《인민이 못 잊는 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 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곁을 떠나 신 때로부터 어느덧 2년이 되였다.

지나온 기간은 그이를 끝없이 그리워하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떠받들려 흐른 나날이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활동 으로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리론,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 시였다.

또한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 되고있다. 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조선을 일심단결의 나라로 전변 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 시키시였다.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인중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영원한 총비서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 수리아신문《앗 누르》11일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 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 였다.

>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 였다.

> 김정일각하는 위대하고 걸출한 령도자이시였다.

> 국제사회계는 그이를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계승발전시키신 탁월한 사상리론가로 칭송하면 서 열렬히 흠모하고있다.

> 오늘 조선인민의 진두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훌륭 히 계승완성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인민의 친어버이이시 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실것 이다.

뷸레찐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 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2011년 12월 뜻밖에 서거하시였지만 조선인민은 그이를 조선로동당 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로선 은 조선로동당의 지도적지침으 로,그이께서 수십성상 당을 이끄시면서 이룩하신 특출한 업적은 조선인민의 사회주의위업 을 힘있게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사회주 민의 총진군을 이끌어나가는 실로 그이는 조국과 인민앞에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과 더불 어 영생하고계신다.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내세 우고 우대해주며 그들의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잘 돌봐주는것은 우리 사회의 고상한 미풍이다.

사회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

며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잘 돌

봐주고있는 사람들가운데는 보

통강구역안의 일군들과 의료일 군들도 있다. 지난 9월 어느날 보통강구역 인민병원으로는 여러명의 사람 들이 입원하였다. 그들의 담당

의사는 의술이 높은 내과과장 김란희동무였다. 병원에서는 그들에게 해빛이 오래동안 들고 여러 의료기구를 설치할수 있는 입원실을 정해주 었고 아무 불편없이 지낼수 있도

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었다. 그들의 입원실에는 치료뿐아 니라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는 기재들도 마련되여있었다. 입원 환자들은 저마다 호기심을 안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 들이기에 이렇듯 병원에서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인가. 알고 보니 그들은 다름아닌 구역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들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

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 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몇달전 구역당위원회에서는

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

돌봐줄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었다. 이렇게 되여 지난 9월부터 해당 부문 일군들의 참가밑에 구역당위원회의 깊은 관심속에

협의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토의된것 은 보양 및 치료기간을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하는것이였다. 병원에서는 지난 기간 당조직

의 지도밑에 영예군인들의 건강을 위해 해마다 보양 및 치료기간 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있었다. 오랜 기간 영예군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돌보아오는 과정에 이 사

업은 어길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구역당책임일군인 조상호동무 는 구역인민병원에서 그달중으 로 영예군인들에 대한 건강검진 을 진행하고 필요한 의료대책을 세워주는 한편 치료효과가 좋은 계절에 그들이 보양 및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준비사업들을 짜 고들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

러면서 그는 모두에게 말하였다. 《우리 당이 아끼고 사랑하는 귀중한 보배들인 영예군인들의 치료를 성심성의로 도와나서는 것은 우리 일군들의 마땅한 도리 입니다.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울수 있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되여줍시다.》 일군들모두가 보양 및 치료기간 을 영예군인들에게 있어서 한생 잊지 못할 나날로 되게 하자며 저마다 한가지씩 맡아나섰다.

그후 책임일군은 주마다 준비

사업정형에 대해 알아보며 보양

및 치료기간이 영예군인들의 건강

영예군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잘 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보통강구역안의 일 군 들 과

> 영예군인들은 4 0일간에 걸치는 보양 및 치료를 받게 되였다. 입원기간에도 구역당위원회 에서는 영예군인들에게 베풀어 지는 우리 당의 사랑과 은정이 그대로 가닿도록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짜고들었다. 매일이다싶이 보약들을 비롯 한 약품들과 영양식품들이 영예 군인들에게 한가득 안겨지고 구 역안의 당, 정권기관, 기업소일 군들이 면회를 오군 하였다.

병원일군들인 정관철, 홍영란 동무들은 치료사업을 짜고들면 서 검진과정에 발견되는 여러가 지 질병들에 대한 대책을 제때 에 세워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특히 김란희동무는 그들에 대한 치료사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영예군인들 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료를

매일같이 보장하였다. 보양 및 치료기간에 생일을 맞는 영예군인들도 있었다. 사실 생일상은 병원에서 차려

주기로 마음먹고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안 보통강구역 류경 1 탁 아소 소장 백영란동무를 비롯한 1 0여명의 보육원들은 영예군 인들을 위해 자기들도 무엇인가 하고싶다고 하면서 성의껏 준비 한 음식들을 가지고 찾아왔다. 구역당책임일군의 가정에서 는 생일을 맞는 영예군인들을

의 료 일 군 들 찾아와 축하도 해주고 생일상도

차려주었다. 친부모, 친형제가 된듯 영예군 인들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떨쳐 나서는 아름다운 모습에서 영예 군인들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 고 사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더 욱 가슴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조국을 위한 길에서 값높은 삶

의 자욱을 새긴 영예군인이라고 저저마다 존경하고 내세워주는 이 따뜻한 품, 인정많은 사람들… 언제인가는 이런 일도 있 었다. 매일이다싶이 찾아와 그 들의 건강상태와 하루일과 등을 알아보는 한 일군에게 영예군인

들은 한결같이 말하였다. 《저희들때문에 너무 걱정하 지 마십시오. 별로 한 일없이 해 마다 보양을 받는것만도 송구스 럽습니다. 더는 바쁜 시간을 내 며 걸음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일군에게 있어 서 사람들을 만나는것보다 더 긴 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당이 그처 럼 아끼고 사랑하는 영예군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일군들은 우정이라 도 품을 놓고 만나야 합니다.》 일군의 이러한 풍모는 그대로

한점의 불씨가 되였고 구역의 많

은 일군들이 영예군인들의 건강 을 위한 사업에 발벗고나섰다. 이뿐이 아니였다. 모든 조건들 을 마련해주고도 무엇이 부족할 세라 당조직에서는 영예군인들을 위해 혁명사적지들과 명승지참 관, 극장관람까지 조직해주었다.

보양 및 치료기간이 끝날무렵 입원실을 찾아온 구역당책임일 군은 매 영예군인들의 치료정형 도 알아보고 그새 몸무게는 얼 마나 늘었는가, 앞으로 무엇이 제기되는가도 일일이 알아보았다. 그리고는 영예군인들에게 돌려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항상 잊지 말 고 건강관리를 더 잘하며 사업 과 생활에서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였다.

간의 나날과 더불어 영예군인들 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며 보 람찬 삶의 자욱을 새겨갈 결의 를 굳게 다지였다. 그러는 그들에게 한 일군은

친혈육의 정이 오가는 4 0일

말하였다. 《우리 일군들이 영예군인들 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이 사 업과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잘 도와주고 보살퍼주라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입니다.》 이곳 구역안의 일군들과 의료 일군들은 지난 10여년동안 영 예군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애 로되는 모든 문제를 진심으로 풀 어주었으며 그들이 삶의 희열에 넘쳐 하루하루를 빛내이도록 다 심한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였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영예군

인들이 가정을 이룰 때마다 부 모된 심정에서 결혼상도 차려주 었고 전투임무수행중 뜻하지 않 게 희생된 군인의 유가족을 잘 도와주는 사업도 짜고들었다. 본사기자 김옥별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황해 납도 탑사관리국에서

들과 로동계급이 《마식령속도》 창조의 불길드높이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

옷진, 배천, 풍천지질탐사대를 비롯한 관리국아래 10여개 단 위들이 이미 년간계획을 끝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로대가 은을 내게 하 자면 지질탐사사업을 끊임없 이 발전시켜 나라의 자원을 남김없이 찾아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호소문에 무한히 고무 된 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은 나라의 재부를 늘여갈 애국

황해남도람사관리국의 일군 의 일념안고 년초부터 더 많은 겨 수행하였다. 한과 로동계급이 《마식령속도》 지하자원을 찾아내기 위한 치렬 배천지질람사 한 돌격전을 벌렸다.

> 당조직의 지도밑에 관리국의 일군들은 결의목표를 명백히 세 우고 아래단위들을 하나씩 맡고 내려가 그 수행에로 대중을 적 극 불러일으키는 한편 시추작업 에 필요한 자재들을 제때에 보 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은 지질탐사대들에서 혁신의 불

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옷진지질탐사대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불타는 애 국의 한마음안고 치렬한 돌격전 을 벌려 수십만t의 광물매장지 를 새로 찾아냈으며 지난 8월 말까지 맡겨진 년간계획을 앞당

배천지질탐사대에서는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시 추에 절실히 필요한 추환을 합리 적으로 개조하는 성과를 이룩하 였다.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 의 지혜와 힘을 합쳐 새 기술성 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임으로 써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도수문지질탐사대를 비롯한 계획수행기간 관리국아래 많 관리국아래 10여개 단위들에 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호소문에 제시된 전투 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

과를 이룩하였다. 특파기자 리승철

及 立 셛 9 廷

마식령스키장건설이 완공단 계에 이르기까지 군인건설자들 과 함께 일도 하고 원호사업도 하면서 건설장을 뜨지 않은 사 람들이 있었다.

함흥시 해안구역 송흥동 4 5 인민반에서 건설장으로 달려간 녀성들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문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이 마 식령으로 달려오던 그때 해안 구역 송흥동에 사는 10여명 의 녀성들도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해가지고 건설장으로 달 려갔다. 하루도 아니고 오랜 기간 집을 떠나 원호사업을 진 행하였다. 단순히 원호물자만 안겨주지 않았다. 군인건설자 들과 함께 삽질도 하고 지대정 리도 하면서 애국의 땀을 뿌리 였다.

하지만 군인건설자들과 한전 호에 선 심정으로 녀성들이 원 군길을 꿋꿋이 이어가도록 필 요한 조건도 마련해주면서 말 없이 뒤에서 밀어준 해안구역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 하여 아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 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이 며 우리 사회의 밀뿌리인 군 민대단결의 힘으로 마식령스 키장건설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 »

몇달전 이곳 주민들이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를 안고 마식령

스키장건설장을 찾아가기로 결 심하였을 때였다. 그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소 중한 애국의 마음을 크게 본 구 역당위원회의 일군들은 그 결심 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많은 원 호물자를 가지고 수백리길에 나 설 녀성들의 심정을 헤아려보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애로되

는 점이 있을세라 필요한 대책

도 세워주었다. 진상렬동무를 비롯한 구역당 위원회일군들은 수십년동안 원 군길을 걸어온 리춘녀녀성을 만 나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이 어가도록 고무해주었다. 그리고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함께 마 식령스키장건설장으로 떠나는 한 조건도 보장해주었다. 건설

음식을 만들어 군인건설자들에 게 안겨주고 그들을 도와 일하 는 소식을 구역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소개해주었으며 기회를 마련하여 내세워주기도 하였다.

이에 힘을 얻은 라순옥, 한경 희, 김명화동무를 비롯한 녀성 들은 원군길에 더욱 발벗고나섰 다. 이들의 모범을 본받아 구역 안의 일군들도 자기들의 성의가 어린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마식 령스키장건설장으로 보내주

해안은하피복공장 지배인동무 를 비롯한 구역안의 일군들은 원 호물자를 마련하여 마식령스키 장건설장으로 떠나보냈다.

군민대단결은 마식령스키장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문의 구절 을 심장으로 새기고 마식령스키 장건설장을 물질적으로 적극 지 원하고있을뿐아니라 원군길을 꿋꿋이 이어가도록 뒤받침도 잘 해주고있는 구역안의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송흥동 녀성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필요 녀성들의 애국의 발걸음은 오늘 도 변함이 없는것 아니라!

본사기자 전경서

제 1 4 차 아시아청년유술선수권대회와 제7차 아시아청소년유술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선 수 들 우 리 국 귀

【평양 12월 17일발 조선중앙 통신】 중국의 해남도에서 진행된 제14차 아시아청년유술선수권 대회와 제7차 아시아청소년유술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17일 귀국하였다.

20여개 나라와 지역의 남녀 선수들 수백명이 참가한 이번 선수권대회들에서 우리 선수들 은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여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동메달 6개를 쟁취하

였다. 홍철송선수는 청년유술선수 권대회 남자 55kg급경기에서, 김충혁, 김진아선수들은 청소년 유술선수권대회 남자 60kg급과 녀자 52kg급경기에서 1등을 하 여 금메달을 수여받았다.

청년유술선수권대회 녀자

52kg급경기에서 지은하선수는

48kg급경기에서 장명민, 림성 심선수들은 3위를 하였다. 김남혁, 김철광선수들은 청 소년유술선수권대회 남자 50kg급과 66kg급경기에서, 오 선희, 박은아선수들은 녀자 44kg급과 48kg급경기에서 동

메달을 받았다. 평양역에서 김병식 체육성 부 상, 관계부문 일군들, 가족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2위를,남자 73kg급과 녀자 장에 달려나간 녀성들이 갖가지 ¬─311973 (정기간행물번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제외조)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